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제22회) 경율론 삼장(經律論 三藏) 百高座 大說法會

百高座法會란 불상과 보살상과 나한상을 각각 백분씩 모시는 한편, 백명의 법사를 청하여 사자좌(獅子座)에 모시고 100일간 법문을 청하는 의식입니다. 특히, 나라의 편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00일간 100인의 큰스님을 초청해 설법하는 전통불교법회로 승유억불 정책으로 조선시대 이래 맥이 끊어졌던 것을, 저희 법왕사에서 매년 百高座法會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진면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며 “불교의 세계관과 역사적 실천론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론으로 쓰여진 법화경과 화엄경을 위주로, 올해도 저희 법왕사에서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전하고자 제22회 경율론 삼장 백고좌 대설법회를 법랍 30년 이상의 대덕스님을 초청하여 봉행하고자 합니다.

경전강의에 관심이 있거나 불교교리를 배우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입재 : 불기 2555년(2011년),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100일간)

❁ 회향 : 불기 2555년(2011년),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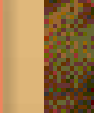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큰법당(3층)

❁ 증명 : 무진장, 도문, 밀운, 정무 (조계종 대종사)

❁ 진행 : 실상 합장

• 매일 오전 09시 30분에 108배 2회를 주지스님이 직접 집전합니다.

• 백고좌 법회 기간중에 49재 영가를 접수합니다.

									
보각스님	원광스님	마성스님	금담스님	옹산스님	범안스님	밀운스님	정음스님	산인스님	원순스님
제31일차_10월 5일	제32일차_10월 6일	제33일차_10월 7일	제34일차_10월 8일	제35일차_10월 9일	제36일차_10월 10일	제37일차_10월 11일	제38일차_10월 12일	제39일차_10월 13일	제40일차_10월 14일
중앙승가대학교수	동화사 교무국장	팔리문헌연구소장	극락원회주	전수덕사주지	안심정사주지	봉선사회주	청주정음사원	정방사 주지	송광사 주지
									
덕산스님	혜능스님	지오스님	원일스님	혜일스님	혜경스님	지목스님	지철스님	무염스님	영산스님
제41일차_10월 15일	제42일차_10월 16일	제43일차_10월 17일	제44일차_10월 18일	제45일차_10월 19일	제46일차_10월 20일	제47일차_10월 21일	제48일차_10월 22일	제49일차_10월 23일	제50일차_10월 24일
해은사 주지	전해인사율원장	범어사율원장	도안사 주지	사천달미사주지	화담정사조실	보림사주지	동화사 포교국장	교전사 주지	해통사주지
									
혜성스님	일장스님	향봉스님	선진스님	현웅스님	혜인스님	환해스님	원천스님	덕진스님	도진스님
제51일차_10월 25일	제52일차_10월 26일	제53일차_10월 27일	제54일차_10월 28일	제55일차_10월 29일	제56일차_10월 30일	제57일차_10월 31일	제58일차_11월 1일	제59일차_11월 2일	제60일차_11월 3일
삼불사 주지	유마사승가대학장	사자암 주지	보현암 주지	육조사선원장	재주약천사 주지	선재사 주지	김해 선지사 주지	정토사 주지	직지사 종암 주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www.bubwangsa.or.kr

2011. 10
통권 216호



Contents

04 깨침의 향기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10 알아봅시다

약사여래(藥師如來)

16 재미있는 불교설화

금빛 까마귀 <예산·향천사>

19 기획특집

무연사회로 가는 우리사회

23 만화 불교이야기

불교의 쇠락기에 활동한 함허·설잠·보우

26 법왕피플

음성공양을 통해 법음을 전하는 우담바라합창단

28 웰빙푸드

산초 짬야찌, 산초차

30 법왕사 소식

32 법왕사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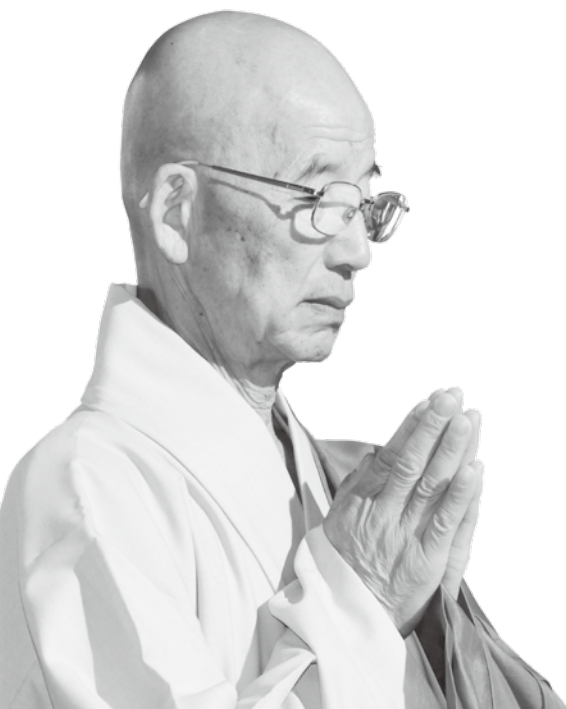
법왕처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더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통권 216호 불기 2555(2011)년 9월 25일 발행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종무소 T.053) 766-3747 · 9088 F.053) 767-6095 기 획 회주 · 정무스님 발행인 실상스님 편집위원장 김영광
편집위원 원인, 자윤, 선문 취재기자 박학순 디자인 풍경소리 기획·제작 도서출판 풍경소리 053) 424-0144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어떤 것이 나인가?”

마음은 몸이 생길때,
따라 생기지도
따라 죽지도 않는다.

인간은 육체와 마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동물은 육체 본위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무시하고 육체 본위로 사는 것은 동물식의 생활입니다. 마음을 찾아 깨우치고 육체(肉體), 영체(靈體)두가지가 갖추어 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인격을 성취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진리는 불변이다. 부동이다'는 말을 합니다. 변하지도 않고 동(動)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는것도 몸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이것이지, 마음은 몸이 생길때 따라 생기지도 않고 죽을 때 따라 죽지도 않습니다.

마음이란 영원한 진리인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진리,

영원한 진리란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따라서 마음을 찾아 깨친 그사람을 부처, 곧 불(佛)이라 말합니다.

부처란 말은 각자(覺者)라는 말입니다.

우주는 지·수·화·풍(地水火風),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공은 바람이고, 허공 안에 물이고, 물 안에는 흙이고, 흙 안에는 불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공은 풍륜(風輪)이라 합니다. 물은 수륜(水輪), 흙은 토륜(土輪), 흙속의 불은 화륜(火輪)이렇게 4륜 소생(所生), 네 가지 바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몸도 지수화풍의 네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몸은 흙의기운, 피는 물 기운, 숨쉬고 활동하는 것은 바람 기운, 몸의 온기는 불입니다.

한 그루 나무가 자라나는 것도 그 나무가 땅에다 뿌리박고 거기서 수분을 섭취하고, 태양을 받고, 바람을 받아야 양생되지 그 가운데 한가지만 없어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나, 나무하나 자라는 것이나, 지구나 우주 전체가 이 같은 하나의 원리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일에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부처님이 코살라의 나라 마을로 여행중일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탁발을 나간 부처님은 밭 가는 농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사문이며, 우리는 손수 밭 갈고 씨뿌리는 노동을 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니 당신도 밭 갈고 씨를 뿌려 수확을 거두어 식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의 질문은 거의 힐난에 가까웠다.

어째서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하는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농부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대답했다.

농부는 부처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사문들이 밭 갈고 씨뿌리며 일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만약 당신이 농사를 짓는다면 씨앗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의 모습은 어디에 있으며 소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은 농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마음은 나의 밭이고, 믿음은 나의 씨앗이다. 지혜는 나의 모습이며,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악업을 없애는 것은 내가 뽑는 잡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것이 나의 소(牛)다. 나는 이와 같이 밭 갈고 씨를 뿌려서 감로의 결실을 수확한다. 이것이 나의 농사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농부의 노동과 빚대어 말씀을 하신 것은 노동을 금기시 한 것이 아닌 출가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재가자들의 보시에 의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스려 마음의 농사를 농부의 마음처럼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면 마음의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인가?

마음의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행을 통해 철저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또 현재 자기의 위치를 명확히 알아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재의 자신을 점수로 매겨본다면 몇 점짜리 어머니, 몇 점짜리 아내, 몇 점짜리 남편, 몇 점짜리 자식인지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수박인지, 고추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듯이 말이다. 또한 같은 밭에서 자란 식물이라도 고추는 맵고, 수박은 달다. 그것은 고추는 고추의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맵고, 수박은 수박의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단것이다.

즉 마음 농사는 결론은 간단한 것이다. 수행을 통해 철저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면, 그다음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근기에 맞는 농사를 지을 것이며, 부처님이 되고 싶다면 부처님의 마음을 내면 되는 것이다.

참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염불, 참선, 주력, 경전연구 등의 공부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업에 몰두하거나 밭을 매거나 밥을 짓거나 빨래를 하거나 모두가 수행이 될 수가 있다.

밭농사에 농사를 지을 때 ‘비탈진 이 밭에는 무엇을 심을까? 이 씨앗을 얹게 심으면 까치가 까먹을 것이고 깊이 심으면 썩이 더디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농사짓는 모든 일에 심사숙고 할 때 실한 작물을 많이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이다.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냥 쌀을 씻어서 밥솥에 안치는 것 보다는 ‘몸에 좋은 잡곡



을 섞어야지,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조금 진밥을 해야겠다.’ 이렇게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하는 것이 수행의 요체요 기본이다.

그래서 ‘불사문중 불사일법(佛事門中 不捨一法)’이라 하는 것이다. 즉 ‘부처 되하고자 하는 일에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 만 가지의 일상사가 벌어지지만 그 일상사 중 한 가지 일도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다. 매사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매사에 마음을 써서 부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알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남이 내 마음을 맞춰주기를 바랄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곧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오늘 나를 스치고 지나간 일상사 중 나는 얼마나 부처님의 마음을 내었는지 돌아보자.

약사여래(藥師如來)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진찰을 하고 병의 원인을 진단하여 그에 맞는 치료나 약을 쓰게 된다. 그러면 환자는 아픔을 잊고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중생이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병이라면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 주시는 의사와 같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교법을 설하여 그 고통을 없애고 편안하게 하여 준다고 하여 우리는 부처님을 대의왕(大醫王)이라 부른다. 이처럼 중생의 아픔을 치료하는 부처님을 약사여래 부처님이라고 한다.

약사여래는 대웅전의 격을 높여 ‘대웅보전’이라 할 때 ‘석가모니불’의 협시불로 왼쪽의 ‘아



미타불'과 함께 오른쪽에 봉안되었던 부처였다.

위와는 달리 절의 불전들 중에 사바세계 중생들의 질병 치료, 수명 연장, 재화 소멸, 의복과 음식 등을 풍족하게 하는 권능을 지닌 것으로 믿는 약사여래를 따로 봉안하여 신앙하는 법당을 약사전(藥師殿)이라 하고, 달리 유리전(琉璃殿), 유리보전(琉璃寶殿), 만월전(滿月殿), 만월보전(滿月寶殿)이라 하기도 한다. 이 약사불을 봉안하여 신앙하여 각지에 약사사(藥師寺), 약사암(藥師庵), 약사원(藥師院), 약사전(藥師殿), 유리광사(琉璃光寺)란 이름의 사찰과 암자가 흔하다.



약사여래는 우리와 같이 청정한 국토로 알려지는 동방정유리세계(東方淨琉璃世界)를 관장)하는 부처로 자세히는 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라 하고 혹은 줄여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한다. 이 부처는 과거에 구도자인 보살이었을 적에 중생을 바로 제도하기 위하여 모두 12가지의 서원(誓願, 12大願)을 세워 부처의 행(行)을 닦음으로써 무상보리(無上菩提)의 묘과(妙果)를 증득(證得)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형상은 큰 연화 위에 앉은 모습이며 왼손에 약병을 들고 오른손은 팔을 들어 다섯 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여 물건을 주는 수인(手印)인 시무외인(施無畏印)을 맺었으며, 또는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내리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

약사여래가 무엇을 어찌하여 중생의 고통을 덜겠다 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그 12대원(十二大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광명보조원(光明普照願)…자기와 남의 몸에 광명이 끝없고, 상호(相好)가 원만하기를 서원함
- (2) 수의성판원(隨意成辦願)…몸은 우리와 같고 치성한 광명은 마음의 암흑을 비추어 모든 사업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서원함
- (3) 시무진물원(施無盡物願)…중생의 욕구를 다 이루게 하기를 서원함
- (4) 안립대승원(安立大乘願)…다른 중

◀백옥사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28호)

교를 믿는 이를 불교로, 소승교는 대승교로 이끌어 들이기를 서원함

(5) 구계청정원(具戒淸淨願)…청정한 수행을 하는 이에게 3취정계(三聚淨戒)를 갖추게 하기를 서원함. * 3취정계는 보살수행의 계법임.

(6) 제근구족원(諸根具足願)…신체의 불구자를 완전케 하기를 서원

(7) 제병안락원(除病安樂願)…병을 없애고 위 없는 증과(證果)에 이르게 하기를 서원함

(8) 전녀득불원(轉女得佛願)…여자 몸을 남자로 변하게 하여 성불하기를 서원함

(9) 안립정견원(安立正見願)…사사(邪思), 사건(邪見)을 버리고 정견에 안립하기를 서원함

(10) 제난해탈원(除難解脫願)…중생으로 하여금 도난, 투옥 따위의 벗어나게 하기를 서원함

(11) 포식안락원(飽食安樂願)…음식이 넉넉하고 불법을 듣고 절대적인 안락경에 있도록 하기를 서원함

(12) 미의만족원(美衣滿足願)…빈한하여 의복이 없는 이에게 아름다운 옷을 얻게 하기를 서원함

약사전에는 보통 본존으로 약사여래를, 협시불로는 약왕보살(藥王菩薩) 혹은 왼쪽에 일광보살(日光菩薩), 오른쪽에 월광보살(月光菩薩)을 세우고, 불상의 뒷면 벽의 탕화로는 약사유리광회상도(藥師琉璃光會上圖)를 걸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 가야할 것이 약왕보살에 관한 내용이다. 병의 뿌리를 잘라내어 중생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결국에는 성불의 길로 인도하고자 원을 세우신 분이 약왕보살(藥王菩薩)이다. 이 분의 산스크리트 명은 바이샤자 라자(Bhaisajya - raja)이다. 바이샤자란 약을 일컫는 말이며 라자는 왕이라는 뜻이니 바로 약왕인 것이다. 병 고치는 약을 제공하는 데서 으뜸가는 보살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모든 제난을 제거하는 보살이라면 이 분은 그 외연이 조금 더 좁혀진 병에 대한 처방이 으뜸가는 보살이다. 또한 약왕보살은 자신의 몸을 남김없이 태워서 부처님께 바치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의 정신을 보여준 분이다.

약왕보살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이다. 본사란 본생(本生)과 같은 말로 전생의 인생살이를 일컫는 얘기이므로, 바로 약왕보살의 전생이야기랄 수 있다.

별자리를 통하여 신통력을 발휘하는 수왕화(宿王華)보살이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약왕보살은 그렇게 자재롭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얘기는 전개된다. 옛날 일월정명덕여래(日月淨明德如來)가 계실 때의 일. 일체중생희견보살(一切衆生喜見菩薩)은 그 여래의 설법을 듣고 감복한 나머지 1만2천년 동안 수행한 결과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알맞게 몸을 나투고 그에 적합한 가르침을 퍼는 현일체



▲티벳만다라의 약사여래불화

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온 몸을 불살라 부처님께 공양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고는 오랜 세월 동안 향기가 나는 향목(香木), 향초(香草) 등을 먹고, 또한 향기 나는 향유(香油)만을 마시면서 일상을 살아간다. 이는 썩어문들어질 색신(色身)을 버리고 향기 나는 몸인 향신(香身)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희견보살은 자신의 몸을 천의(天衣)로 감싼 채 다시 그 위에 향유를 바르고는 이른바 소신공양을 거행한다. 그러나 죽음은 또 하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법. 그는 환생하여 일월정명덕여래 앞에 다시 나타나 재회의 감격을 맞본다. 그러나 만

남의 기쁨도 잠시뿐, 부처님은 이제 이승을 떠나겠노라고 아쉬운 작별을 고한다. “잘 와주었도다. 나는 오늘밤 열반에 들터이므로 나의 법을 그대에게 맡기노니 널리 세간에 펼칠지니라.” 희견보살은 슬픔에 잠겨 울먹이면서 부처님의 몸을 화장한 후 8만4천 개의 탑을 세워 거기에 사리를 봉안한다. 그것만으로 부족한지 다시 양 팔을 태워 사리에 공양하자 여러 사람들이 그가 불구의 몸이 된 것을 걱정하며 슬퍼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나는 비록 두 팔을 버렸지만, 그 대신 이제 금색의 영원불멸한 붓다의 몸을 얻을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참되고 헛되지 아니하면 이 없어진 나의 두 팔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의 말대로 그의 몸은 곧바로 회복되었다. 바로 썩어없어져 버릴 육체를 단연코 포기한 결과 영원한 불신(佛身)을 얻었던 것이다.

밀교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약왕보살은 약상(藥上) 보살과 더불어 그 이름에 걸맞는 치병의 기능히 강조되어 나타난다. 약상보살도 약을 처방하여 병을 치유하는 데서는 최고(上)라 하여 그렇게 불린 것이다.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에서는 치병과 관련되어 그들의 전생 얘기를 소개한다. 『법화경』에서도 약왕과 더불어 약상보살이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보면 이 경전과 『법화경』의 친연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법화경』에서는 소신 공양을, 이 경전에서는 중생과 비구에 대한 약 공양을 강조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아주 오랜 옛날, 일장(日藏)이라는 총명하고 어진 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받들어 펴고 있었다. 어느 마을에 성수광(星宿王)이라는 장자(長者)와 그의 아우 전광명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성수광은 일장 비구가 설하는 대승의 큰 지혜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가슴이 확 열리는 듯한 기쁨에 몸을 떨었다. 칙흠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

을 본 장자는 오로지 진리의 길에 매진하겠노라고 결심한다. 나아가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어준 일장비구에게 히말라야에서 나는 약을 공양하고서는, 다음과 같은 원을 세운다. ‘원컨대 나의 이 두 손에 모든 약을 담아서 중생들의 병을 어루만지고 모든 병을 낫게 해주소서.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이름을 듣거나 외우면 모두 깊고 미묘한 다라니의 가없는 진리의 법약(法藥)을 복용케 할 것이며, 즉시 이들로 하여금 현재의 몸에 남아 있는 모든 약을 소멸하여 어떤 소원이든 모두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성불하였을 때 원컨대 모든 중생이 대승의 가르침을 향하게 하소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병고침이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병의 쾌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의 병, 정신의 병에서 더 나아가 결국에는 법의 약으로 중생들을 모든 번뇌에서 해탈케 하는 성불로 이끌고 간다는데 대승불교 특유의 병에 대한 관점과 그 치유가 드러난다. 그의 아우 전광명도 형과 마찬가지로 일장 비구의 설법을 듣고 기쁜 나머지 그에게 약을 공양하고 원을 세워 성불하게 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형 성수광을 약왕(藥王)이라 하고 그의 아우 전광명을 약상(藥上)이라 불리었으며, 마침내 성불하게 된다.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대표적인 곳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바위다. 이 불상의 학술상 정식 명칭은 ‘관봉석조여래좌상’으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것바위부처님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국보28호인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두 손을 잃었지만 완전한 입상으로 신라시대 부처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약왕보살의 경우 보물 139호인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이 유명하다.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꿇고(고대 인도의 관습에 따라 자신을 낮추고 스승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시) 두 손을 모으고 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한 석조보살좌상은 약왕보살본사품의 희견보살의 모습이다.

전 후생에 걸쳐 거듭 자신의 몸을 불태워 공양한 약왕보살, 자신의 살을 태우는 고통으로 얼굴은 일그러지고 몸은 이리저러 뒤틀릴 법한데도 끝은 자세로 미소가 흐르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월정사 약왕보살(희견보살)▲



금빛 까마귀 <예산·향천사>

백제 의자왕 때다. 7척 키에 인물이 준수하며 범학에 뛰어난 보조국사 의각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평소 반야심경을 늘 지송했다.

스님이 중국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다.

잠자리에 들려던 혜의 스님은 밖에서 섬광이 일고 있음을 엿보았다.

『아니 이 밤중에 웬 빛일까?』

놀란 혜의 스님은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창틈으로 엿보았다.

「저 곳은 의각 스님 방이 아닌가.」

이때 의각 스님은 방에 단정히 앉아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었다.

『간밤에 내가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백 번 외우고 눈을 떠보니 사방벽이 뚫린 듯 뜰 밖까지 훤히 보이더군요. 웬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만져 보았으나 벽과 창이 모두 달려 있어 다시 앉아서 경을 외웠는데 역시 뜰 밖이 보였습니다. 이는 반야의 부사의한 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볼 뿐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이때 헤의 스님이 일어나 간밤에 본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 후 의각 스님은 더이상 중국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고국에 돌아가 불법을 널리 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 포교의 원력을 세운 의각 스님은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석불상 3청5위와 삼존불상을 모시고 지금의 충청도 예산 땅에 도착했다.

스님은 모시고 온 불상을 봉안키 위해 명당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황금빛 까마귀 한 마리가 스님의 머리 위를 맴돌면서 「까악까악」 울어댔다.

『오 -라, 네가 절터를 안내하겠단 말이지. 그래 내 따라갈 터이니 어서 앞장서거라.』

스님의 말귀를 알아차린 듯 까마귀는 서서히 날기 시작했다.

얼마 후 까마귀는 덕봉산 기슭에 내려앉았다. 스님은 그 자리에 절터를 닦기 시작했다.

어느새 인근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다.

『중국에 다녀오신 큰스님이 우리 마을에 절을 세우고 3청불을 모신대지요?』

『우리 마을의 경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작은 힘이지만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법당이 속히 완성되도록 불사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성이 담긴 시물을 의각 스님에게 전했다.

어느 날 아침, 떠꺼머리 총각이 의각 스님을 찾아왔다.

『아직 이른 시각인데 어쩐 일로...』

『벌써부터 스님을 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시물을 마련치 못해 망설이다 오늘 용기를 내어 이렇게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흙을 파내고 나무를 나르는 등 불사를 돕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고맙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란 시물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오. 나를 만나고 싶고, 법당을 세우는 이 현장에 오고 싶은 그 마음엔 벌써 불심이 가득했으니 부끄러워 말게나.』

『스님, 제게는 몸져누워 계신 노모님이 계십니다. 이 몸 장가도 들지 못하여 변변히 모시지 못하니 불효가 큼니다. 법당이 완성되면 제 모친의 명한이 속히 완쾌되길 부처님께 간곡히 기도 올리려 합니다.』

『그대의 효심이 그리 장한데 어찌 기도가 성취되지 않겠소.』

스님은 그 총각에게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토록 일러줬다. 종일 일하면서 한줄씩 외우기 시작한 것인데 어느새 총각은 반야심경을 줄줄 외우게 됐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병환에 차도가 있길 기원했다.

법당 낙성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새옷으로 갈아입고 모두 새절로 향했다. 떠꺼머리 총각도 그날은 깨끗한 옷으로 몸을 단정히 하고 어머니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올렸다. 그때였다.

『**애야, 나 좀 일으켜다오. 나도 법당 낙성식에 가서 부처님을 뵈고 싶구나.**』

『**어머님, 아니 됩니다. 그대로 누워 계세요. 저 혼자 다녀오겠어요.**』

『**아니다. 이상스럽게 오늘 아침 몸이 아주 가볍구나.**』

어머니 청에 못 이겨 아들이 손을 내밀자 총각의 어머니는 언제 아팠느냐는 듯 거뜰히 일어났다. 떠꺼머리 총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머님, 부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기빠 어쩔 줄 몰라하며 부둥켜안고 울던 모자는 3월의 햇살을 받으며 낙성식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길을 걸어 갈증을 느낀 노파는 법당 옆에 있는 샘물을 마시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들에게 물을 권했다.

샘물에서는 전날과 달리 그윽한 향기가 풍겼다. 이를 확인한 스님은 그날 낙성식에서 절 이름을 향천사라 명했다. 그리고 덕봉산은 금 까마귀가 안내했다 하여 금오산으로 고쳐 불렀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의각 스님이 처음 배를 댄 곳을 배논이라 불렀고, 스님이 타고 온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 어디선가 한밤중에 은은한 종소리가 들렸다 하여 마을 이름을 종성리라 명했다. 또 그 바닷가는 석주포라고 했으며 황소가 돌 부처를 실어 나른 후 바위 옆에서 크게 소리치며 쓰러져 죽었으므로 절 입구의 바위를 고함바위라 불렀다.

지금도 향천사 극락전에는 1,053위의 부처님이 계신다.





무연사회로 가는 우리사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 그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세월만은 거스를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말년에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수천 명 이상의 '불로초 원정대'를 파견했다. 진시황 뿐 만 아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암브로시아'는 신들의 음식으로 이것을 먹으면 신들처럼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전해졌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인간은 불로장생의 묘약을 찾았고 오래 살기를 원했다.

최근 '노화는 질병이다(Aging is a disease)'라며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즉 노화가 질병이라면, 언젠가는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불로장생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현대의학은 평균 수명을 80세 이상으로 현대에 들어 평균 수명을 35세나 높였다. 이런 현대의 발달된 의학의 공헌으로 오늘날 노인인구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던 생각이 이제는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하여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여기서 노인문제라는 것은 고령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의미한다. 즉 정신적, 신체적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나이가 들어감으로 오는 육체적인 불편함이야 어찌할 수 없다는 치터라도, 빈곤과 고독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의 3고(三苦) '빈곤', '질병', '고독'

과거의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노인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할 것인가?

노인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꼽는다. 존경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노인들이 눈치를 보고 팔시 속에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무능력을 들 수 있고, 혼자 사는 노인 역시 경제난에 고통 받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미취업자나 실직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그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적인 현실만을 탓하며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인가?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반해 기업의 정년퇴직은 55세 안팎이다. 요즘 취업난으로 30세가 다 되어 취직을 한다고 감안을 하면 25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여 25년을 노년으로 보내는 것이다.

또한 최근 통계를 보면 독거노인의 수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 ‘왕따’문제가 심각하지만 자녀로부터 아니, 사회로부터 이미 따돌림만을 당하고 있는 ‘노인 왕따’문제는 더 심각해 노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평균 수명이 훨씬 낮다고 한다. 즉 혼자 지내는 외로움, 거기서 오는 우울증이 그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무연사회란 말을 아는가? 무연사회란 인간관계가 희박해짐에 따라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의 죽음조차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회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죽음은 인간의 몸을 받고 세상에 나왔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언제 어디서든 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잘살다가도 내일 훌쩍 떠날 수 있기에 죽음이란 단어는 우리를 겸손하게, 때로는 엄숙하게 만들어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한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죽음은 고독하다.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고독사, 독거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여건에 있다.

또한, 외로움에서 비롯한 우울증으로 자기 방임 상태에 빠져 약을 챙겨먹지 않는 등의 현상으로 더욱 그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 더욱이 요즘 유행하는 전화피싱 사기 등 힘없는 노인이 홀로 생활하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쉽다.



과거 우리나라로부터 세계가 배우고자 했던 것이 ‘효사상’이었다. 어른을 존중하고 인사를 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세계는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효사상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불교계도 노인복지 문제에 앞장서야..

우리 불교계를 보면 타종교에 비해 노인들의 비중이 많다. 불교의 기본정신이 ‘자비’이고 대승불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보살상이 ‘자리아타’의 정신임에도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지나간 추석같은 명절이면 더욱 외롭다는 독거노인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회복지사업법인 법왕해오름전문요양원

설립 후원 동참 안내

법왕사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2011년12월 개원을 목표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해오름 전문노인요양원”을 착공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부모님을 간병 할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 어르신들께서 편안히 생활하시는 “해오름전문노인요양원”과 요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한 “재가센터”로 구성되는 법왕해오름 전문요양원은 어르신들 개개인의 욕구와 건강 상태에 알맞은 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노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여가활동과 치료 등의 프로그램 도입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오니 후원 및 자원봉사 등에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505-10-109401-8(대구은행)

동참문의 : 법왕사 종무소 T.053)766-3747

중양절 합동 천도제 봉행

예부터 중양절에는 성주단지에 햇곡식으로 성주 차레를 지내며, 기일을 모르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며, 연고자 없이 떠돌다 죽었거나 병으로 죽은 이의 제사를 지냅니다.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5일(음력9월9일) 중양절을 맞아 합동천도제를 모실 예정입니다. 천도제는 여러 불보살님께 재를 올려 영가들이 바른길을 찾아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영가들의 죄업이 무겁고 크더라도 불보살님의 위신력에 힘입어 제도될 수 있도록 발원하는 것입니다. 조상천도는 참다운 효의 실천이므로 영가를 모신 불자님들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영가들에게 염불과 독경 등 무상법문을 설해주는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불기 2555년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3층 만불보전 ▲문의 : 766-3747

법왕사 금강사물단 단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박성경 단장님을 모시고 한국 고전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쟁과리, 장구, 북, 징으로 표현하는 사물놀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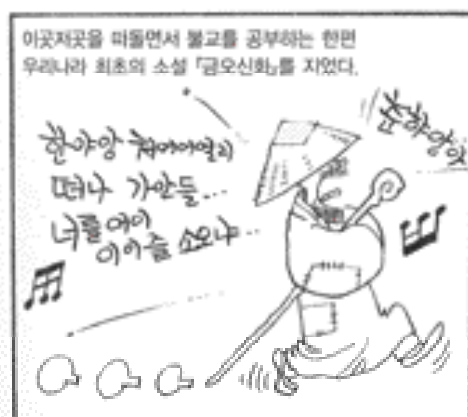
예술의 멋과 흥을 창조하는 사물놀이에 재능과 끼가 있는 불자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법왕사 복지관
- 단 장 : 박성경(환경문화예술단회장)
- 과 목 : 풍물12마당, 영남사물, 민요, 각설이장단, 천수바라춤 등 지도
- 문 의 : 종무소 053) 766-3747
- 홈페이지 : www.bubwangsa.or.kr



불교의 쇠락기에 활동한 함허 · 설잠 · 보우







음성공양을 통해 법음을 전하는 우담바라합창단

우리절 주지이신 실상스님께서 행사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 유럽에 K-POP이 있다면 법왕사에는 우담바라합창단이 있다고 말이다. 대구경북 불교음악협회장이신 정무시 선생의 지휘로 행사 때 마다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밝은 빛을 던져주는 신행 단체가 바로 우담바라합창단이다.

우담바라는 불경에서 여래(如來)나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나타날 때만 핀다는 상상의 꽃이다. 3천년 만에 한 번 꽃이 피는 신령스러운 꽃으로, 매우 드물고 희귀하다는 비유 또는 구원의 뜻으로 여러 불경에서 자주 쓰인다. 불경에 의하면, 인도에 그 나무는 있지만 꽃이 없고, 여래가 세상에 태어날 때 꽃이 피며,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면 그 복덕으로 말미암아 감득해서 꽃이 핀다고 하였다. 때문에 이 꽃이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은 상서로운 징조라 하였다. 또 여래의 묘음(妙音)을 듣는 것은 이 꽃을 보는 것과 같고, 여래의 32상을 보는 것은 이 꽃을 보는 것보다 백만 년이나 어렵다고 하였다. 여래의 지혜는 우담바라가 때가 되어야 피는 것처럼 적은 지혜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음의 깊이가 있어야 알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상서로운 꽃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어 얼마나 기쁜 일인가 ^^; “중생들이여 법음을 통해 무명에서 벗어나라.”

불설아미타경을 보면 극락에는 많은 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를 하고 중생들은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삼보를 생각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듯,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극락세계의 모습을 전하는 우담바라합창단....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통해서 법음을 전하며, K-POP 군단 우담바라합창단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발원한다.



<지휘자 : 정무시 선생님>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대구.경북 불교음악협회장
POTALA 남성중창단 리더
대구시립예술단 수석 테너

- 모임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모임장소 : 법왕사 합창실





오체투지

저자 : 한경혜 | 출판사 : 작가의집

성철스님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천만 번의 오체투지 장애를 축복으로 승화시킨 30년 조업한 삶의 기록

– 다섯 살까지 걷지도 못하던 뇌성마비 여자아이. 말은 입 안에서 버걱거리고, 얼굴은 제멋대로 돌아가고, 사지는 따로따로 허우적거리기만 했던 아이. 세상으로부터 내던져진 그 아이가 다시 새로운 삶의 끈을 부여잡게 된 계기는 바로 절이었다. 병원에서든 고개를 저었던 그 아이는 성철스님과의 인연

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 숙제하듯 천 배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장애를 극복하기보다 차라리 운명을 개척해가는 수행의方便이었다. 학교수업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았지만 오직 절하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입검정고시를 3개월 만에 통과하면서 대학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장애인인 탓에 목표였던 미대진학을 번번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전공을 달리하면서든 뜻을 놓지 않았고 결국 95년에 처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상하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국전에서 두 번의 특선과 다섯 번의 입선 경력을 갖게 되었고 수차례 작품전도 열었지만 정식으로 미술공부를 하고 싶다는 꿈을 버릴 수가 없었다. 절은 집중력을 키워 공부에 매진하게 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로 작용한 결과였으리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 진학을 하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품은 채 올 여름 졸업의 맛을 본다.

이제 그 아이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다. 뇌성마비의 몸으로 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정상인도 쉽지 않다는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한 이후 그 아이는 전국장애인체전에 '희망장애인'으로 선정되어 개막식행사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이 땅의 150만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뿌려주었다.

그 아이는 대학시절 실코로드 여행을 하며 일행들과 찍은 비디오에서 우연히 비쳐진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또 다른 절 수행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천 배를 하며 얻어진 내공을 시험이라도 하듯 그 아이는 목숨을 담보로 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한다.

'만 배 백일기도'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는 그 수행의 길을 가며 죽음과 맞닥트리는 고비를 몇 차례씩 넘겨야 했다. 스스로가 선택한 고행이기에 망상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 이 생에서 장애라는 운화를 끊어내고 싶은 새로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스물 두 살, 그리고 스물 세 살의 나이에 그 아이는 그렇게 세 번의 만 배 백일기도를 통해 천형과도 같은 뇌성마비를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잉태하고 있었다.

아, 구경객! 삶에 대한 지극하고 완전한 깨달음.

그랬다. 그 아이는 절을 통해 구경객을 보았다. 그 아이에게 있어 절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바로 깨달음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2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천 배를 하고 만 배 백일기도를 세 차례 거듭하면서 생애 천만 번의 오체투지의 결과였다. 지금 그 아이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성숙한 여인으로 거듭 태어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경남 진영에 [작가의 집]을 지어 아이들과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절 수행의 스승이면서 도반인 엄마와 함께 장애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가 하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체험의 장으로 자신의 꿈을 한껏 키워가고 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절을 통해 기적을 일궈낸 진정한 인간승리를 본다.



선재 스님

선재(善財)스님은 80년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의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여러 선방에서 정진했다. 94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논문으로 <사찰음식문화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경전을 근거로 하여 사찰음식의 특징과 유형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후 그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만큼 심한 간경화를 앓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찰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불교TV <푸른 맛, 푸른요리>를 통해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보리사로 직접 찾아오고, 전화로 문의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상담을 해주게 된다.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은 바로 그의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현재 그는 여주 보리사에 머물면서 사찰음식 연수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장으로 사찰음식을 지도하고 있다.

산초 짱아찌

재료 산초 600g, 진간장 3컵, 집간장 1컵, 소주 약간

1 산초는 너무 여러거나 여물면 장아찌용으로 적당치 않다. 열매가 아직 과량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 송아리채 따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놓는다.

2 산초를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에 담고 팔팔 끓는물을 부어 6~7시간 정도 담가두었다가 찬물에 행귀 소

쿠리에 건져둔다. 이 향이 너무 강하면 중간에 물을 갈아준다. 끓는물에 담그는 대신 데쳐내면 산초 특유의 아삭한 맛이 사라진다.

3 진간장과 집간장을 섞어 팔팔 끓였다가 식힌 후 산초가 잠길 정도로 붓는다.

4 5~7일 정도 묵힌 후 간장은 따라낸다. 간장에 물을 조금 붓고 다시 끓여 식힌 다음 여기에 소주를 섞어 산초에 다시 붓고 한 달 정도 묵힌 후 먹기 시작한다. 산초 장아찌는 먹을 때 조금씩 꺼내 건지가 축축이 잠길 정도로 제 간장을 부어 낸다. 가을에 담가 1년 내내 조금씩 먹는데 입맛 없는 여름철에 특히 좋은 반찬이다.

산초차

재료 산초 200g, 꿀(또는 황설탕으로 만든 시럽)1컵

1 산초는 열매가 아직 파랗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 송아리째 따서 깨끗이 씻은 다음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하나도 남김 없이 제거한다.

2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저장용기에 산초와 같은 양의 꿀을 부은 다음 한 달 후부터 먹기 시작한다. 꿀 대신 황설탕으로 시럽을 만들어 식힌 후 부어도 된다. 황설탕 시럽은 냄비에 황설탕같은 같은 양의 물을 붓고 약한불에 타지 않도록 끓여 만들면 된다.



불가의 먹거리 지혜 | 재피와 산초

재피는 열매, 잎을 다 먹는 데 비해 산초는 열매만 먹습니다. 산초는 열매가 아직 파랗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 장아찌나 차 담그고, 씨는 기름을 짜 '산초 기름'을 만들어 기관지염이나 중풍을 치료하는 약으로 씁니다. 재피는 잎을 장아찌, 장떡, 찌개 등에 두루 사용하며 재피 열매는 말려서 껍질을 살짝 볶아 가루를 내어 씁니다. 재피가루는 우리나라에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양념이었습니다. 특히 김치에 넣으면 매콤한 맛을 낼 뿐 아니라 김치가 빨리 시지 않도록 해주는 천연 방부제이기도 했거든요. 재피는 후춧가루와 겨자를 능가

하는 천연 향신료인 동시에 스님들에게는 훌륭한 약재이기도 합니다. 약을 잘 드시지 않는 스님들에게 재피는 구충제인 동시에 중풍, 해독, 진통, 건위약으로 쓰이며, 채식으로 인해 추위와 더위에 약하기 쉬운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재피 열매 껍질을 배게 속에 넣고 자면 두통이나 불면증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재피는 우리나라를 통해 일본에도 전해졌는데 일본인들은 재피가루로 환을 만들어 유럽 등에 건강식품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산초와 재피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어느 책에서 보니 산초잎 된장국이나 산초잎 장아찌라는 음식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산초와 재피를 바꿔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산초잎은 독성이 강해 먹을 수 없습니다. 산초와 재피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잎을 보세요. 사진에서처럼 재피 앞에는 가장자리에 톱니같이 뾰족한 가시가 있는 데 비해 산초잎은 매끈합니다. 또 송아리를 보면 산초는 한가지에 평형으로 열매가 달린 데 비해 재피는 한 가지에 옹기종기 열매가 달린 것을 볼 수 있지요.

법왕사 소식

■ 법왕사 참선반 참선활동

법왕사에서는 불기 2555년 하안거해제와 함께 참선수행을 하고자 하는 재가자들을 위해 주지 실상스님께서는 본당 2층에 참선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일반 재가불자들은 간화선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화두를 드는 순간에 이미 정혜의 경지에 다가서는 것 입니다. 참선수행을 통해 얻어진 지혜로 일상생활에서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원만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실상스님은 개인이나, 단체든 누구나 수행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 “축” 개원—대한불교조계종 대구법왕사 합천분원 용문사

합천에 위치한 광미사가 원창건자이신 법왕사 실상스님이 2011년 8월 새로이 단정을 하여 예전 사찰명이었던 용문사로 개정을 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대구 법왕사 합천분원 용문사로 합천군 대병면에 개원하였습니다. 모두 다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왕가족의 경사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여 나날이 번창하도록 기원하며 합천 신도님께서도 수시로 기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 숙식제공 기도 환영합니다.

장소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성리 산 18-1번지 전화번호 : 055-931-3742

■ 제22회 경율론 삼장 백고좌 대법회 봉행

지난 8월 23일 조계종 원로의원이신 불심도문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100일간의 100분의 큰스님들을 모시고 법을 청하는 사자후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심도문스님은 입재 법문을 통하여 경율론 삼장의 경전 형성과정과 그 의미를 되짚어 주시며, 우리가 경전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를 설해주셨습니다. 또한 입재 때는 대구연합합창단의 동참으로 인해서 더욱 성황리에 치루었습니다. 매일500여명 이상의 많은 신도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고 있는 이번 백고좌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큰스님들의 법문의 통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번 법회에 주변 분들에게도 동참을 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운불련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달리는 거리의 포교사 운불련 불자님들의 법회가 지난 9월 19일부터 9월21일까지 3일동안 1,000여명의 기사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되었습니다.

운불련 대표 (053)766-7777



■ 2012학년도 수능입시 100일 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8월 3일부터 매일 108배를 통해 수험생들의 합격성취를 발원하는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수험일인 11월 10일 까지 매일 봉행되오니 수험생을 두었으나 아직 동참 못하신 가족들은 동참하시어 그 동안의 학습 노력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축원드려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할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발원합니다.



■ LED 전등 보수 및 법왕문화회관 전등설치

한쪽에 불이 나가있던 법왕사 LED 전등의 보수와 법왕문화회관 전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법왕사 3층 윤각설치 및 단청완료

법왕사 3층 법당에 새로이 윤각을 설치하고 단청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공전을 장엄하기 위해 동참하신 많은 신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인 법왕해오름전문요양원 설립

2008년 법왕사 복지관을 완공하여 문화회관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나은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2011년12월 개원을 목표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 전문노인요양원”을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요양원 시설 허가를 받아 현판을 준비하고 있으니 신도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추석합동기제사 봉행

법왕사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200여명의 신도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복지관 3층 법당에서 평생위패를 모신 영가와 따로 차례를 신청한 영가를 위해 합동 차례를 올렸습니다.

■ 어려운 이웃에게 쌀전달

법왕사에서는 지난 9월 20일 백고좌 법회 기간중에 동참하신 불자님이 보시한 쌀을 모아 쌀 60kg을 수성구청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왕사 계시판

새법우 명단

북 구	조춘자								
수성구	김영주	문미숙	김민성	김수아	김수민	김정자	김용호	신영숙	김민규
	김민성	박경창	김정자	박창목	강정수	박은영	강인옥	김상원	이은선
	김태혁	김민제	장두조						
기 타	전대희	오희숙	전주희	전주연	이대심월	이윤지			

평생위패봉안

ㄸ의령후인 옥재선 영가	ㄸ전이후인 이용학 영가	ㄸ안동유인 권분행 영가	ㄸ거창후인 신용광 영가
ㄸ거창후인 신상범 영가	ㄸ안동후인 권창곤 영가	ㄸ밀양유인 박경특 영가	ㄸ분성후인 배덕호 영가
ㄸ김해유인 김월희 영가	ㄸ분성후인 배영복 영가	ㄸ경주유인 김용조 영가	ㄸ고성후인 이동권 영가
ㄸ광주후인 노상훈 영가	ㄸ김해후인 김중조 영가	ㄸ달성유인 서분석 영가	ㄸ김해유인 김난수 영가
ㄸ김해유인 김일수 영가	ㄸ김해유인 김선이 영가	ㄸ김해후인 김영철 영가	ㄸ연안후인 김태봉 영가
ㄸ평산유인 신척이 영가	ㄸ연안유인 김분남 영가	ㄸ연안후인 김영학 영가	

산신인등 접수 하신 분

김옥현 안봉철

인등접수 하신 분

김민섭 김난지 김지훈 강승우 유혜중 신은철 조효식

기도접수 하신 분

이채원 조민규 이해영 김태욱 배세덕 김민준 이태경

원불봉안불사 동참자

3240 한소영(관세음보살) 3241 ㄸ최판례(아미타불) 3242 배준서 (관세음보살) 3 243 김승한(관세음보살)

법왕 해오름 노인 전문 요양원 불사 접수하신 분

김옥자 구실상화 이복순 김정남 김상수 황순애 권순득 이영수 김경남 금강심 최태희 황미선 박해진
백상현 백보현행 김순태 김말향 정낙준 양문갑 여보리자 박경영 정충훈 허정현 김종숙 도경식

축하드립니다.

- 9월 17일 오후 4시 30분, 유승민 거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정애숙 보살님의 장녀 서경아 양의 결혼식이 9월 25일

왕생극락 하옵소서

- **안미옥**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성주도氏 부연영가님의 기제사가 6월 9일 있었습니다.
- **배운자**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달성손氏 계출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 31일 있었습니다.
- **권정학**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안동권公 창곤영가님의 막제가 9월 1일 있었습니다.
- **이동식** 법우님의 ㄸ형님후인 고성이公 동권영가님의 초제가 9월 1일 있었습니다.
- **김광현**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김해김公 영선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 2일 있었습니다.
- **배재한** 법우님의 ㄸ증조부후인 분성배公 덕호영가님 ㄸ증조모유인 김해김氏 월희영가님
ㄸ조부후인 분성배公 영복영가님 ㄸ조모유인 경주김氏 용조영가님
ㄸ엄부후인 분성배公 점식영가님 ㄸ자모유인 함양박氏 외남영가님의
합동 천도제가 9월 2일 있었습니다.
- **노금채**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광주노公 상훈영가님의 초제가 9월 8일 있었습니다.
- **이선홍**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안동권氏 분행영가님의 막제가 9월 10일 있었습니다.
- **공 건**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인천채氏 명남영가님의 초제가 9월 11일 있었습니다.
- **옥영규**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의령옥公 재선영가님의 막제가 9월 11일 있었습니다.
- **신유리**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거창신公 용광영가님의 막제가 9월 18일 있었습니다.
- **김보경**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안동권氏 무량화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 21일 있었습니다.
- **백영배**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수원백公 상흥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 24일 있었습니다.
- **김영애**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달성서氏 갑입영가님의 백제가 9월 25일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보 도움 주신 분

신창진 2,000부 김성훈 1,000부 최옥남 1,000부
강현성 서경아 300부 최정심행 300부 홍공덕심 200부
구실상화 200부 박경란 200부 법운주 100부
박해진 100부 김종숙 100부 백보현행 100부
윤건불심 100부 조진불심 100부 한현식 100부
황미선 100부 이재학 50부 김로연 50부 김분용 50부
김말항 50부 김순태 50부 노수정 50부 오난옥 50부
이세정 50부 최태희 30부 무착심 30부
합창단장 200부 합창단원 100부
불교대학 경전반 100부 불교대학 야간반 50부

● 떡공양 주신 분

강점구 정영미 황춘연 이정화 김상수 이세정 구자환
구미영 신성호 신세호 정춘화 김상수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송승식 ㄸ서응남 김광한 황성환 이순남

● 후원품 주신 분

박상원 노수정 김순태 양문갑 김봉조 하경용
심규암 김선희 토담마을 송화 황춘연 이정화

● 세탁기 후원 하신 분

경덕심 정임형 금강심 최병임 수월심 박정숙 보문화
김분용 이석수 정양자 김상원 지장회 추무 신장회
지장회 한선동 묘장엄 이경선 최명선 혜명화 이세정

● 잔디 후원 하신 분

신명공 김윤주 류명륜행 주복귀 조난숙 박경덕심
정문수행 박분남 오지영 이바라밀 김대덕화 김현숙
조선장 조감로연

● 요령불사 하신 분

안기환 감로연 김현숙 윤건불심 이바라밀

● 공양미 올리신 분

심규암 양봉훈 (1차) 김창용 (1차) 정봉석 양봉훈 (2차)
김창용 (2차)

감사합니다

● 복지관 준공 소나무 시주하신 분

신명교 권오성 김태욱 정경숙 육민환 이현지 권순득
이대현 유성중 우혜림

● 승복 보시하신 분

법운주 권민지

● 과일 공양 올리신 분

신용홍

CMS접수 하신 분

108석등

이창형 3만원 윤경진 8만원 문영자 2만원
현미숙 3만원 현미숙 3만원

산신인등

김애경 1만원 박초진 1만원 정영미 5천원
정영미 5천원 손동림 5천원 손동림 5천원

원불보안

최유자 3만원 오현아 2만원 허재순 5만원
박선미 2만원 김옥자 1만원 권영분 2만원
권영분 2만원 남경순 2만원 남경순 2만원
이호진 1만원 차미희 3만원 오지현 4만원
오지현 4만원 이종매 3만원 이종매 3만원
민병철 3만원 강창현 2만원 김금순 4만5천원
김금순 4만5천원 심규암 5만원 김점숙 2만원
김점숙 2만원 송화중 3만원 송화중 3만원

인등

김성미 5천원 이승일 2만원 전재필 5천원
최기조 2만원 최미숙 3만5천원 김영희 2만원
한천숙 1만원 한천숙 1만원 오창혁 1만원
서상태 2만원 서상태 2만원 신인숙 5천원
이선영 5천원 신정옥 4만5천원 류윤형 15천원
정순희 2만원 김숙정 6만원 김숙정 6만원
황국희 2만5천원 김분용 2만원 홍경식 1만원
노경정 2만원 김명선 2만5천원 이경숙 5천원
전재호 1만원 성상현 2만원 이숙희 2만원
이숙희 2만원 황경란 1만5천원 강춘희 2만원
김명숙 1만5천원 김명숙 1만5천원 임상순 1만원
최유자 1만5천원

초하루·축원

송순분 2만원 윤계한 2만원 박정순 2만원
이영희 4만원 손향숙 2만원 김지연 2만원
나형진 2만원 전태일 4만원 진영덕 2만원
진영덕 2만원 이태현 2만원 이태현 2만원
송애자 2만원 이선미 2만원 정연이 2만원
평생위패
정광춘 5만원

한평불사

강종태 10만원 김정숙 10만원 박낙근 3만원
정권환 3만원 정동준 3만원 나은숙 3만원
나은숙 3만원 도경식 10만원 김의환 2만원
손인숙 5만원 서필희 1만원

단집

전광환 1만원

일년등

채영주 1만원 채영주 1만원

기타

김승한 1만원 성유주 5천원 심영선 5천원
조경희 5만원 김영홍 15만원 조전근 2만원
조전근 2만원 김연자 1만원 김재현 1만원
주석순 5천원 정영석 5만원 이관수 2만원
이관수 2만원

봉정암 성지순례 봉행



살아생전에 꼭 한번은 참배해야 할 불뇌사리보탑이 있는 곳 적멸보궁 봉정암으로 순례법회를 떠납니다. 법왕사 신도님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순례법회에 동참바랍니다.

- 코스 : 백담사 - 오세암 - 봉정암(대청봉) - 수렴동계곡
 - 일시 : 10월 7일(금) ~ 10월 9일(일) 2박 3일
 - 출발 : 10월 7일 저녁 12시
 - 장소 : 법왕사 주차장
 - 회비 : 10만원
-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766-3747

제22회 백고좌(28일차) 이동법회 및 송담 큰스님 친견법회 일정

법왕사에서는 제22회 경.을.론 삼장 백고좌 대설법회중 28일차 이동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불자님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봉행 : 송담 큰스님 화두, 불명, 십선계 수계법회
- 일시 : 불기2555년(2011년) 10월 2일(일요일)
- 출발 : 오전 7시 법왕사
- 경유 :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 도착 : 인천 용화사
- 문의 : 법왕사 종무소 ☎ 053)766-3747

2012학년도 수능 입시생을 위한 100일 기도 및 49재 영가 천도재

법왕사에서는 100일동안 수험생들의 합격성취를 발원하는 기도 및 49재 영가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입시생 가족들은 지극한 정성으로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려 그 동안의 학습 노력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원드려 자녀들이 원하는 목표치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함께 발원드리며, 49재를 통해 조상의 은덕을 누리는 복을 짓기 바랍니다.

- 입재 : 8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 회향 :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 시험치는 당일은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지스님 집전으로 계속 기도 봉행합니다.

제39회 법왕사 경로잔치 한마당



저희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11시부터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법왕사에서는 매년 두 차례씩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성스런 음식과 재미난 공연으로 하루를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지실 수 있도록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움주실 분, 후원하실 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참바랍니다.

법보시계좌 (무통장입금) 예금주: 법왕사
C M S 039-10-001382
지로번호 3054150
대구은행 047-05-003698-6
농협 702010-51-106490

- 1부 - 11시 경로법회
- 2부 - 12시 점심공양
- 3부 - 경로잔치 한마당

※ 일시 : 10월 15일 (토)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광장
※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T. 766-3747, 766-3742